

현대일본어의 여성어와 교육실천

김 설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성과 그에 따르는 고유한 미감과 정서가 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거나 있어도 서로 독특하게 구별되는 민족성은 매개 나라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 같은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99페이지)

매개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거나 있어도 서로 독특하게 구별되는 민족성이 있게 되며 그것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된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자기의 고유한 어휘부류를 가지고있다. 어느 언어나 력사적기원의 공통성에 따라 또는 쓰이는 분야에 따라, 입말체에서 쓰이는가 글말체에서 쓰이는가에 따라 어휘부류를 가르고있다. 이러한 부류의 어휘들이 종합되어 해당 언어의 어휘구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일부 언어는 다른 언어에 없는 어휘부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가 일본어의 남성어와 여성어이다.

일본어에서는 성별에 따르는 단어 및 말체의 고유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남성어와 여성어라는 어휘부류를 설정하고있다.

일본어에서 여성어란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언어표현형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여성들밖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 문법형식, 표현방식 등을 말한다.

일본어에 여성어가 존재한다고 하여 결코 일본어가 어휘가 풍부한 언어이거나 레절 표현방식이 다양한 언어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어여성어의 형성과정과 그 요인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일본어여성어는 헤이안시대(794—1192)에 처음으로 출현하여 《斎宮の忌語》(이세신궁에서 궁녀들이 쓰기를 피한 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때 이세신궁에 가서 제사를 담당하던 왕족출신녀성을 이른바 시녀라고 불렀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어지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고급》하고 《고상》한감을 주는 말이라는것을 만들어냈다. 그후 가마쿠라시대(1192—1333)에도 시녀는 고유어만을 사용하고 남성과 일반녀성은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무로마찌시대(1336—1573)에 들어선 다음 상층사회에서 《女房詞》(궁녀가 썼던 은어적인 말)가 출현하였다. 궁정에서 야비한 말을 사용하면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간주되었으므로 정중하고 고상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여성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음식과 집기류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되었다. 여성어가 명확한 형식을 가지고 출현한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에도시대(1603—1867)에 와서 여성어는 궁정에서부터 상류사회에로 파급되었다. 당시 귀족계층과 관리들은 가족에 속한 녀인들에게 궁정여성어를 수록한 전문서적을

읽게 하였다. 에도시대 후반기 막부는 여성어를 중심으로 한 에도말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어의 체계화,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여성어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에도시대의 이른바 《교육개혁》은 봉건전제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건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하게 보급되어 일본근대교육체제의 기초로 되었으며 막부가 보급한 에도말체계는 여성어를 중심으로 하여 성별차이가 심한 간사이방언을 규범으로 널리 전파시켰다.

명치시대에 정부가 제정한 《표준일본어》에 의하여 여성어는 더욱 체계화, 규범화되고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평민들속에까지 널리 보급됨으로써 모든 여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말로 되었다.

이처럼 일본어여성어는 일본사회의 종교미신적이며 봉건적인 여성차별관념, 반인민적 사상과 그것을 기초로 형성된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오늘날에 와서 일본어에서 남성어와 여성어가 접근하고있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있지만 의연히 여성어는 하나의 어휘부류로서 존재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여성어를 교육실천에 어떻게 도입하겠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본어여성어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우선 여성어의 언어적특징을 남성어와의 대비속에서 습득시키는것이다.

일본어여성어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갈라 가르칠수 있다.

첫째로, 어음론적측면에서 여성어의 특징을 남성어와 대비적견지에서 그 차이점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음성적측면에서 남성어는 음조의 변화가 단조롭고 변화폭이 좁지만 여성어는 음조의 높낮이변화가 심하며 변화폭이 넓다.

여성어는 다양한 음조변화로 표현을 풍부하게 하며 남성어보다 부드럽고 우아한 어조적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우아하고 규범적인 발음을 요구하기때문에 말소리에서 변조가 생기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남성어는 흔히 규범에서 벗어나는 음조가 적지 않고 변조가 많다. 실례로 비공식적인 정황에서 남성은 《きたない》(어지럽다)를 《きたねえ》로, 《すごい》(굉장하다)를 《すごい》로 바꾸어 말할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이와 같은 음운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로, 어휘사용의 견지에서 품사별에 따르는 여성어와 남성어의 사용상차이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어휘적측면에서 여성어와 남성어는 주로 인칭대명사, 감동사, 종조사, 접속사 등의 사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칭대명사를 보면 남성은 1인칭대명사로 《ぼく》, 《おれ》, 《おいら》, 《わし》, 《我輩》, 2인칭대명사로 《きみ》, 《おまえ》, 《きさま》, 《てめえ》 등을 사용하지만 여성은 1인칭대명사로 《あたし》, 《あたくし》, 《あたい》, 2인칭대명사로 《あんた》를 사용한다.

감동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사용어휘수가 많다. 몇가지 실례를 들면 남성들만 사용하는것으로서 《おい》(여봐), 《これ》(이봐), 《あれ》(에그), 《やあ》(야), 《おう》(오) 등 다소 거칠고 어감이 센것이 많지만 여성어인 경우에는 《あら》(어마나), 《まあ》(아이참), 《あや》(아

이) 등 어감이 부드러운 감동사를 사용한다. 실례로 《あ、久しぶり。》(야, 오래간만입니다.)를 표현할 때 남성은 《よう一、しばらく。》, 여성은 《あら、しばらく。》라고 말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종조사는 대체로 《さ》, 《な》, 《ぞ》, 《ぜ》, 《か》, 《な》 등으로서 거칠고 직선적이지만 여성은 《の》, 《わ》, 《のよ》, 《のね》, 《のよね》 등 우아한 뜻빛깔을 가진 종조사를 사용한다.

실례로 《遅い》(늦다)를 나타낼 때 남성은 《ゆっくりだね》라고 말할수 있지만 여성은 《ゆっくりね》라고 말한다.

접속사도 남성은 좀 직접적이고 센 느낌을 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면 여성은 보통 《ですから》(그러므로)와 같은 비교적 상냥하고 애매한 뜻빛깔을 가진 접속사를 사용한다.

이밖에도 남성어에서는 허물없는 사이에서 속된말이 섞이는 비율이 높지만 여성어에서는 속어가 될수록 쓰이지 않는다.

셋째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여성어와 남성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것이다.

의사표현방식의 측면에서 남성은 명백한 금지형과 명령형을 사용하여 자기의 요구나 생각을 직선적으로 나타내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성인 경우에는 특수한 표현형식에 따라 자기의 요구를 애두르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실례로 식사하면서 요리를 권할 때 남성은 《食べろ》(먹으라.)라는 명령형을 직접 사용할수 있지만 여성은 《食べてください》(잡수십시오.)라고 말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류할 때 남성은 《そんなことをするな。》(그런짓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의 뜻을 가진 종조사 《な》를 사용할수 있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そんなことをしないで。》(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라는 애매한 표현형식으로 자기의 요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성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지 않고 《なあ》, 《わ》, 《思う》 등으로 말을 얼버무리며 단정하는 식의 표현을 피한다.

넷째로, 경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여성어와 남성어의 차이점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여성어와 남성어는 경어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은 경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경어의 등급도 남자보다 높으며 겸손과 례의를 나타내는 수단들을 즐겨 사용한다.

실례로 다른 사람에게 언제 떠나는가에 대하여 물을 때 남성은 《いつ行くんですか?》(언제 갑니까?)와 같이 간단히 말할수 있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비교적 진중하고 상냥한 어조로 《いついらっしゃるの?》(언제 가십니까?)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어에서는 《お米》(쌀), 《お写真》(사진), 《お靴》(신발), 《おビール》(맥주), 《お紅茶》(홍차)와 같이 존경의 앞불이 《お》를 리용한 미화어를 자주 사용한다. 특히 여성들은 《客(손님), 酒(술), 風呂(목욕), 正月(정월), 歳暮(년말), 中元(백중날)》 등을 《お》를 붙이지 않고 쓰는 일이 거의 없다. 이전에 녀학생들이 주로 쓰는 말로 되어온 《お遅刻》(지각), 《お朝礼》(아침모임), 《お点》(점수)이나 보모들의 말, 유치원용어 《お絵かき》(화가), 《お腰掛》(결상), 《お並び》(줄), 《お集まり》(모임) 혹은 유아어의 《おべべ》(웃), 《おねんね》(자장자장), 《おまんま》(맘마) 등도 역시 여성어의 계통에 속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면바로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어중간한 말을 하여 뒤부분을 생략하며 《ちょっと》(좀)로 말하기 힘든 것을 대치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로, 한자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여성어와 남성어의 차이점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어휘적측면에서 보면 남자는 한자어체통의 어휘를 많이 쓰며 여자는 고유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한자를 《男手》(남자필적)라고 부르며 한학을 남자들이 배워야 할 학문으로 여긴데 비해 여자들은 주로 와까(일본의 정형시의 하나)를 즐겨온 결과이다. 실례로 미야지마 다쓰오의 고전대조어휘통계를 조사해본 결과 녀류작가들의 작품에서 한자어의 비율은 극상해야 10%정도이고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 세이 쇼나곤의 《마꾸라노소시(枕草子)》에서도 12.2%에 머무르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현대어에도 계승되었는데 이를테면 선거연설 등에서 남성후보자의 말에서는 《諸君》(제군), 《各位》(여러분), 《不肖》(이 못난 사람), 《所存》(생각), 《次第》(사정), 《衷心》(충심), 《切に》(절절히), 《念願》(념원), 《賢察》(현명한 관찰), 《鞭撻》(격려) 등과 같은 한자어나 한자어적인 표현이 많으나 여성후보의 연설에는 한자어적인 색채가 매우 약하다.

서한용어에서도 남성의 편지에는 《侍史》(상대방의 이름밑에 경의를 표하여 쓰는 말), 《机下》(편지받는 사람의 이름밑에 붙이는 높임말 《…앞》의 뜻), 《大兄》(로형), 《貴殿》(당신), 《小生》(저, 소생), 《啓上》(여쭙다, 아뢰다), 《敬伯》(삼가 드림), 《敬具》(삼가 올림) 등과 같은 한자어가 사용되는데 비해 여성들의 편지에는 《御もとへ》(…앞), 《おめもじ》(만나뵈), 《かしこ》(삼가 이만 아뢰나이다), 《あらあらかしこ》(대강 알려드려 외람됩니다)와 같은 독특한 고유어를 찾아볼수 있다.

부름말에서도 남성은 《鈴木君》(스즈끼군), 《佐藤君》(사토군)과 같이 《君》을 붙여 부르나 여성들은 보통 《さん》을 붙여 부르는것도 그 한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어여성어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또한 회화와 듣기, 통역을 비롯한 실기과목들에서 녀학생들이 여성어를 옳바로 사용하도록 숙련과 연습을 다양하게 진행하는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서는 중성체로 되어있는 말체를 여성어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진행하는 방법, 성별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대화문속에서 여성어를 식별하게 하는 방법, 남성어를 여성어로 고치는 방법, 과외영화학습을 통하여 여성어를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수법을 적용할수 있다.

례: ① 중성체를 여성어로 바꾸어 말하기

- 私がします。→ あたしがいたします。(제가 하겠습니다.)
- 今連絡したからすぐに来る。→ 今連絡したからすぐに来るわ。(이자 연락했으니 인차 와요.)
- そちらに金さんいますか。→ そちらに金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거기에 김동무가 있습니까?)
- 兄さん、元気ですか。→ お兄ちゃん、お元気ですか。(오라버님, 건강하십니까.)
- それはいけない。→ それはいけないと思うわ。(그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② 성별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대화문속에서 여성어를 식별하기

- あ、幸雄さん、お帰んなさい。早いね今日は。(아, 유끼오씨,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일찍 왔구만요.)
- あ、見て、あなたの好きなもの。今日十日でしょう。パートのお金が入ったから思い切って買っちゃった。(자,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시는거예요. 오늘이

- 10일이지요. 시간제로동한 돈을 받았기에 마음먹고 샀어요.)
- 佳子、どこへ行くんだ。(게이꼬. 어디 가오?)
 - どんな人が住んでいるかしらね、このマンション。(이 아파트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을가요?)
 - 住んで見たいか。(살아보고싶소?)
 - 私には幸雄さんがいるからいいわ。…ねえ、幸雄さんお願い。(나에겐 유끼오씨가 있으니 괜찮아요.… 자, 부탁드립니다.)
 - はい、もしもし、林です。それは困りますけど、はい、分かりました。何とかします。(예, 여보시오. 하야시입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만 알았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 ねえ、どうしたの。(아이, 무슨 일이에요?)
 - うん、客が来るんだ。それでね、ビール買って来てくれないかな。(응,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맥주 좀 사다주겠소?)
 - 今からお客なの。(이제 손님이 와요?)
 - ビール二本、それにつまみにピーナツかなにかね、頼むよ。(맥주 2병에 안주로 락화생이든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 いいわ。行って来るわ。(알았어요. 갔다오겠어요.)
 - ほら。(자, 받소.)
 - いいわよ。今日は私が出すから。(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내겠어요.)
 - いいから持って行け。(일없소. 가지고 가오.)
 - そう、ではもらっちゃおうかな。それじゃ、行ってきます。(그래요? 그럼 받을가요. 자, 갔다오겠어요.)

③ 남성어를 여성어로 고치기

- もう俺はここに帰ってこねえからな。→ もうあたしはここに帰ってまいりませんからね。(이젠 여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으니.)
- ビールはいかがですか。→ おビールはいかがですか。(맥주는 어떻습니까.)
- どうぞ座ってください。→ どうぞお掛けになってください。(어서 앉으십시오.)
- ええ、すっかりよかったようだ。→ あら、すっかりよくなって見えるわ。(쩍 나아져보여요.)
- 勉強を怠けるな。→ 勉強を怠けないでね。(학습을 태공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일본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선군시대의 유능한 외국어전문가들을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